



백남기 사망 물대포 '위헌' 헌법재판소는 23일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들이 직사살수(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참가자에게 직접 쓰는 행위)를 지시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김민수 기자 <관련기사 4면>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 첫 재판

변호인 "호반건설 아파트 현장 철근 납품 특혜 아냐"

검찰 측 "2018부터 2019년 10월까지 무려 133억 원"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호반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철근 등을 납품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고 대신 광주시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호반건설에 특별한 대우를 해줬다는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김두희)는 2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피의자 이모씨는 이용섭 현 광주시장의 친동생이다. 이씨는 호반그룹으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내 총 4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이씨는 호반그룹에 접근해서 친형인 이용섭 시장을 통해 광주시가 발주하는 대형 사업들에 대해 원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유혹한 뒤, 자신에게 납품 일감을 달라고 종용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개 아파트 현장에서 133억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 4억2천여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고위공무원인 형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광주시에서 발주한 대규모 아파트 공사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려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의 동생을 돌보고 있는 변호사는 서류 작성만 2018년 초에 했을 뿐 실제 철근 납품 계약은 이용섭 시장의 광주시장 출마가 예상되기 전인 2017년 가을에 이뤄졌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에는 이용섭 시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장관급 고위 공직자였을 뿐 광주시장에 나갈 것인지 여부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씨가 호반건설 아파트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기 전에도 호반의 협력업체로서 6~7년간 냉난방 기계를 납품해 왔다"면서 "철근 계약 중 첫 수의계약은 이전 납품 관련 손실보전 명목으로 이뤄졌고 다른 세 건은 경쟁입찰로 진행됐다"고 변명했다.

이용섭 시장의 동생도 "철근을 납품하

기 전에도 7년간 호반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우수 업체로 인정 받고 업종을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이 시장의 동생은 기존 협력업체의 업종을 변경·추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납품 회사를 만든 것이며, 이에 따라 협력업체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도 구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실제로 이 시장의 동생은 에어컨 납품 업체를 운영하던 도중 2017년 3월 K철강을 새로 설립했으며, 호반건설에 철근을 납품하기 훨씬 이전 시기인 2017년 12월에 이미 기존 업체를 매각했었다. 변호인의 주장이나 이 시장 동생의 변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앞서 검찰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재판과 이 시장 동생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두차례 신청했으나 기각돼 이날 별도로 심리를 했다.

검찰 측은 "업체와 이 시장 동생 측이 거래를 하면서 특혜가 있었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직접 증거에 준하는 문서가 있다"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용섭 시장 동생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조인호 기자

코로나19에 위축된 40주년 5·18 기념식

개최 장소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서 민주묘지로 변경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해 참석 인원도 최소한으로 축소

올해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정부 주관 기념식이 당초 계획과 달리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리지 않고 예년처럼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5월 단체들은 전남 광주를 방문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당초 기념식이 열리는 장소로 예상됐던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이 아닌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하지만 오월 단체들은 올해 5·18이 4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기념식 장소를 5·18 민중항쟁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해달라는 의견을 국가보훈처에 제안했다.

국가보훈처도 기념식 장소와 관련해 5월 단체 등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이번 기념식 장소는 5·18 민주광장으로 굳혀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5·18 기념식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타지면서 오월 단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제40주년 기념식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최소 규모로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보훈처도 앞서 지난 20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월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도 두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월단체들은 또 보훈처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립대전현충원에 걸린 전두환 친필 현판과 현충탑 헌시비를 이른 시일 내에 철거·교체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장은 교체 의사를 밝혔으나 정확한 교체 시기와 바뀔 현판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월단체는 또 현충원에 전사자(戰死者)로 기록된 80년 5·18 계엄군 사망자들에 대해서도 표기 정정을 촉구했다. 시민을 적으로 규정해 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한 묘비는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오월단체들은 '5·18의 전국화·세계화'와 '5·18 진상규명', '오월단체 공범단체 지정 법안 통과' 등에 보훈처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신봉우 기자

전남도 '고품질 조사료 생산' 913억 투입

양질 조사료 생산·공급 확대...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여

전남도는 23일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총사업비 913억 원을 투입, 축산농가와 조사료 경영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조사료 생산지인 전남은 전국 조사료 재배면적의 35%인 4만 9천ha를 재배해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내 조사료경영체(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농작물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확충에 필요한 11개 사업에 총 91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588억 원을 비롯 기계·장비 구입 141억 원, 종자구입 115억 원, 퇴·액비 48억 원, 품질관리 9억 원 등이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자가

소비용을 t당 6만원씩 지원하며, 품질 등급제를 받은 유통 조사료는 등급별로 t당 4만2천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는 조사료경영체가 트랙터와 결속기, 랩피복기 등 장비 구입 시 수확면적 30ha 기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노후장비 교체는 장비 구입 후 트랙터는 8년, 기타장비는 5년이 경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조사료 재배의 규모·집단화를 통한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전 문단지 1천 680ha를 추가 지정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비롯 기계·장비, 종자·퇴액비 등을 일괄 지원하며, 국비보조도 일반지역보다 10% 상향해 지원할 방침이다.

허성은 기자



해양치유완도
Marine Healthcare Wando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 완도!



**2021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Wando International Seaweeds Exhibition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THE CAPITAL OF THE CLEAN SEA WANDO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

2021. 4. 23. ~ 5.16. (2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